

가정폭력경험, 자존감과 폭력 허용도가 남자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황미영 · 조운정 · 김옥수(충북대학교)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에서 주로 가해자로 인식되는 남자 대학생의 가정폭력경험(부모 간의 폭력 목격 경험,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과 자존감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폭력 허용도와와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

2. 연구방법

- 연구대상 : 대학 재학 중인 남학생 375명
- 측정도구 : 가정폭력경험·폭력 허용도는 Strauss의 CTS2, 자존감은 Rosenberg의 척도
- 분석 : SPSS를 통한 기술통계, 차이분석(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 분석

3. 연구결과

- 가정폭력경험, 자존감이 폭력 허용도와 상호작용하여 데이트 폭력 가해에 17.5%, 피해에 16.3%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회귀분석 결과는 <표 1>과 같음.

〈표〉 가정폭력경험, 자존감, 폭력 허용도의 상호작용 효과가 데이트 폭력 가해피해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계수 B	표준화계수 β	t	R ²	adjR	F
데이트 폭력 가해 (피해)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	부→모	.32(.16)	.23(.11)	1.90**(1.30)	.199 (.188)	.175 (.163)	8.22*** (7.62***)
		모→부	-.42(-.28)	-.29(-.17)	-3.51**(-2.05*)			
	부모에 의한 폭력경험	부→나	-.08(-.12)	-.08(-.11)	-1.26(-1.69)			
		모→나	.46(.61)	.38(.44)	5.93****(6.90***)			
	자존감		-.13(-.11)	-.14(-.11)	-2.98**(-2.25*)			
	(폭력)허용도		.11(.10)	.22(.18)	4.58*** (3.64***)			
	부→모×허용도		-.52(-.19)	-.27(-.09)	-3.02**(-.96)			
	모→부×허용도		.71(.52)	.31(.20)	3.40** (2.21*)			
	부→나×허용도		.24(.15)	.21(.11)	3.46** (1.81)			
	모→나×허용도		-.15(.00)	-.09(00)	-1.47(.02)			
자존감×허용도		.10(.11)	.10(.09)	2.03*(1.89)				

*p<.05, **p<.01, ***p<.001

-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요인: 모로부터의 폭력경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침. 다른 가정폭력변인과 달리 모가 부에게 폭력한 것을 많이 목격했던 경우에는 데이트 폭력 가해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자존감은 높아질수록 폭력 가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가정폭력변인은 폭력허용도와 상호작용 했을 경우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데이트폭력 피해에 미치는 요인: 모로부터의 폭력 경험, 모가 부에게 폭력 목격 경험과 허용도의 상호작용, 허용도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단독 또는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과는 달리 부로부터의 폭력 경험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4. 결론

가정폭력 경험은 데이트 폭력 가해·피해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 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 가정 내의 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폭력 허용도와는 반대로 자존감은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 경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즉,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데이트 폭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음.